

온 나라 강산에 넘치는 인민의 격정

—시련을 과감히 헤치는 공화국 각지에서 울리는 인민의 목소리—

20일이 가까와오고있다. 각인각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악성비루스가 이 땅을 휩쓴 그날로부터. 건국 이래의 대동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엄혹한 이 시각 하루 또 하루, 날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을 파고들며 끝없이 사투하는 하나의 소원이 있으니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이다. 간절히 그 소원 심장의 노래를

여 아침저녁으로 끝없이 울려 퍼지는 이 나라 강산. 이 한밤도 먼길 가실 원수님 생각하며 우리 마음 자욱자욱 간절히 따라 설다나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아침저녁 소원은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 정녕 경애하는 그이 한분만 믿고 사는 인민이기에 낮이나 밤이나 원수님의 안녕만을 바라고바라고있다.

음성이.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로!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낀다고 말한다.

그밤을 두고두고 외우며 두볼을 적시고 또 적시는것 아니겠는가. 결코 오늘에만 받아안은 사랑이 아니다. 기쁨 떠나 어려울 때나 집집의 창가마다에 비쳐드는 어버이사랑이다. 어찌 이룰뿐이랴. 가는 곳마다에서 그리고 날마다 이런 미덕과 미풍의 대렬이 끊어 떨어지고있다.

어려울수록 더 굳게 단결하고 힘든 때일수록 서로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는 마음들이 갈수록 커지는 나라,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정을 다해 보살펴주는 아름다운 인민. 이렇게 온 나라가 산악같이 일떠서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의 자태를 확연하게 드러내고있는 련포온실농장 건설자들의 심층의 토로이기도 하다. 이 땅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인민들의 불타는 맹세이다. 오늘의 방역형세는 엄혹하다. 그러나 령도자와 인민의 꿋꿋해야 풀수 없는 혼연일체의 힘으로 준엄한 시련을 이겨나가며 방역대전에서 승리의 개가를 울리고있다.

《원수님 같으신분 세상에 없습시다!》

흔히 사람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따뜻하고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한다. 허나 이 세상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쳐도 따르지 못할 위대한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공화국인민들은 받으며 살고있다. 《그때 저희들도 병을 금방 앓고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끝에 우리 원수님께서 저의 몸상태를 손에 잡아보시고 오허려 저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불과 한두발자국밖에까지 말입니다.

국외 실재를 료해하기 위해 찾아왔던 당중앙위원회 한 일군의 모습이었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다가 모시고 사담하는 일군이 이런 곳에 와도 되는가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섬적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함께 지니신 경애하는 그이께서 밤 전염병위험이 도사리고있는 약국들을 찾고찾으시며 온 나라 가정의 평온과 사랑하는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그렇듯 희생적인 헌신의 로고를 바치시었던 것이다.

그이의 심장을 꼭 채우고있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도 귀를 울리며 들려온다.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을 본부 당위원회에 바친다고,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한 그

말씀을 두고두고 외우며 두볼을 적시고 또 적시는것 아니겠는가. 결코 오늘에만 받아안은 사랑이 아니다. 기쁨 떠나 어려울 때나 집집의 창가마다에 비쳐드는 어버이사랑이다. 어찌 이룰뿐이랴. 가는 곳마다에서 그리고 날마다 이런 미덕과 미풍의 대렬이 끊어 떨어지고있다. 어려울수록 더 굳게 단결하고 힘든 때일수록 서로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는 마음들이 갈수록 커지는 나라,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정을 다해 보살펴주는 아름다운 인민. 이렇게 온 나라가 산악같이 일떠서다.

이들의 두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다고 그이께서 절미신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지 못하는 죄책감이 쏟아내는 눈물이었다. 그래서 늦게나마 경애하는 그이께서 자기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는 마음쓰지 마시고 부디 자신의 건강을 돌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가정에서 마련한 자금을 나라에 바친다는 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에 저도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싶습니다.》 《이 없으면 우리 못살다!》라고. 《이 없으면 우리 못살다!》라고.

아무리 엄혹한 방역대전이라 할지라도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향한 공화국인민들의 전진을 멈춰세울수 없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어떤 멀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이 바라는데있다면 하늘의 별도 따 오실 열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인민의 령도자의 사려깊은 걱정과 보살핌의 시선을 한몸에 받아안고있으니 어찌 기적의 힘이 용솟음치지 않을수가. 고난을 겪고난 자식들이 일찍 칠든다는 말이 있다. 인간의 생명을 시시각각 위협하는 엄혹한 시련의 나날이 흘러갈수록 공화국인민들의 가슴속에 더 깊이 자리잡는것은 오직 하나 경애하는 원수님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시며 그이의 안녕을 기어이 지켜드리고 당중앙의 령도를 심신으로 다쳐 받들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과연 지금은 어떤 때가, 게다가 그 때로 말하면 평양시에 유열자수가 증가세를 보이던 매우 위험한 시기가 아니었던가. 더욱이 약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고 지어 병을 앓는 사람까지도 매없이 드나드는 그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있는 곳이 아닌가. 누군들 생각 안해보았으랴. 약국안의 대기중에 무서운 악성비루스균이 언제든지 떠돌수 있다는 것을. 울려 솟구치는 격정속에 판매원의 눈앞에 떠오른것은 며칠전 약

국외 실재를 료해하기 위해 찾아왔던 당중앙위원회 한 일군의 모습이었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다가 모시고 사담하는 일군이 이런 곳에 와도 되는가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섬적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함께 지니신 경애하는 그이께서 밤 전염병위험이 도사리고있는 약국들을 찾고찾으시며 온 나라 가정의 평온과 사랑하는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그렇듯 희생적인 헌신의 로고를 바치시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함께 지니신 경애하는 그이께서 밤 전염병위험이 도사리고있는 약국들을 찾고찾으시며 온 나라 가정의 평온과 사랑하는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그렇듯 희생적인 헌신의 로고를 바치시었던 것이다.

《이 자금을 나라에 바칩시다.》 《이 자금을 나라에 바칩시다.》

《어제 5살짜리 딸애가 앓아눕더니 오늘은 80살이 넘는 할아버지와 내가 편이어서 쓰러졌습니다. 불과 하루이틀새에 이렇게 온 가족이 앓아눕었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우리 가족이... 약국에 가자고 해도 교열로 몸을 운신했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까. 글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격해 주신 인민군 화선군의들이 필요의약품과 가치고 우리 집 문 앞까지 찾아온것이 아닙니까. 순간 치밀어오르는 격정에 활짝 눈물이 쏟아져내렸습니다. ...》

《어제 5살짜리 딸애가 앓아눕더니 오늘은 80살이 넘는 할아버지와 내가 편이어서 쓰러졌습니다. 불과 하루이틀새에 이렇게 온 가족이 앓아눕었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우리 가족이... 약국에 가자고 해도 교열로 몸을 운신했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까. 글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격해 주신 인민군 화선군의들이 필요의약품과 가치고 우리 집 문 앞까지 찾아온것이 아닙니까. 순간 치밀어오르는 격정에 활짝 눈물이 쏟아져내렸습니다. ...》

《어제 5살짜리 딸애가 앓아눕더니 오늘은 80살이 넘는 할아버지와 내가 편이어서 쓰러졌습니다. 불과 하루이틀새에 이렇게 온 가족이 앓아눕었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우리 가족이... 약국에 가자고 해도 교열로 몸을 운신했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까. 글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격해 주신 인민군 화선군의들이 필요의약품과 가치고 우리 집 문 앞까지 찾아온것이 아닙니까. 순간 치밀어오르는 격정에 활짝 눈물이 쏟아져내렸습니다. ...》

《어제 5살짜리 딸애가 앓아눕더니 오늘은 80살이 넘는 할아버지와 내가 편이어서 쓰러졌습니다. 불과 하루이틀새에 이렇게 온 가족이 앓아눕었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우리 가족이... 약국에 가자고 해도 교열로 몸을 운신했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까. 글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격해 주신 인민군 화선군의들이 필요의약품과 가치고 우리 집 문 앞까지 찾아온것이 아닙니까. 순간 치밀어오르는 격정에 활짝 눈물이 쏟아져내렸습니다. ...》

《원수님의 안녕은 인민의 운명이고 행복입니다!》

《어제 5살짜리 딸애가 앓아눕더니 오늘은 80살이 넘는 할아버지와 내가 편이어서 쓰러졌습니다. 불과 하루이틀새에 이렇게 온 가족이 앓아눕었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우리 가족이... 약국에 가자고 해도 교열로 몸을 운신했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까. 글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격해 주신 인민군 화선군의들이 필요의약품과 가치고 우리 집 문 앞까지 찾아온것이 아닙니까. 순간 치밀어오르는 격정에 활짝 눈물이 쏟아져내렸습니다. ...》

《어제 5살짜리 딸애가 앓아눕더니 오늘은 80살이 넘는 할아버지와 내가 편이어서 쓰러졌습니다. 불과 하루이틀새에 이렇게 온 가족이 앓아눕었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우리 가족이... 약국에 가자고 해도 교열로 몸을 운신했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까. 글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격해 주신 인민군 화선군의들이 필요의약품과 가치고 우리 집 문 앞까지 찾아온것이 아닙니까. 순간 치밀어오르는 격정에 활짝 눈물이 쏟아져내렸습니다. ...》

《어제 5살짜리 딸애가 앓아눕더니 오늘은 80살이 넘는 할아버지와 내가 편이어서 쓰러졌습니다. 불과 하루이틀새에 이렇게 온 가족이 앓아눕었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우리 가족이... 약국에 가자고 해도 교열로 몸을 운신했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까. 글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격해 주신 인민군 화선군의들이 필요의약품과 가치고 우리 집 문 앞까지 찾아온것이 아닙니까. 순간 치밀어오르는 격정에 활짝 눈물이 쏟아져내렸습니다. ...》

《어제 5살짜리 딸애가 앓아눕더니 오늘은 80살이 넘는 할아버지와 내가 편이어서 쓰러졌습니다. 불과 하루이틀새에 이렇게 온 가족이 앓아눕었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우리 가족이... 약국에 가자고 해도 교열로 몸을 운신했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까. 글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격해 주신 인민군 화선군의들이 필요의약품과 가치고 우리 집 문 앞까지 찾아온것이 아닙니까. 순간 치밀어오르는 격정에 활짝 눈물이 쏟아져내렸습니다. ...》

《어제 5살짜리 딸애가 앓아눕더니 오늘은 80살이 넘는 할아버지와 내가 편이어서 쓰러졌습니다. 불과 하루이틀새에 이렇게 온 가족이 앓아눕었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우리 가족이... 약국에 가자고 해도 교열로 몸을 운신했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까. 글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격해 주신 인민군 화선군의들이 필요의약품과 가치고 우리 집 문 앞까지 찾아온것이 아닙니까. 순간 치밀어오르는 격정에 활짝 눈물이 쏟아져내렸습니다. ...》



이 땅의 어둠을 가나 노래가 울린다. 이 나라 인민들의 영원한 심장의 노래가 하늘가 저 멀리 울려 퍼진다. ... 친근하신 그이 모셔 강산은 따뜻하고 명명하신 그이 계서 미래는 창창합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하늘땅도 소원하는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본사기자 유금주

인민은 심장으로 워친다

《이런 곳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국과 인민에 대한 령도자의 헌신, 과연 그것이 어떻게 발휘되는가를 알게 해준 또 하나의 혁명일화가 태어나 천만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하여주고있다. 《원수님, 저희들도 병을 앓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비상방역사업이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된 엄중한 시각에 무서운 악성전염병의 위협이 떠돌고있는 약국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르며 그곳 판매원들이 목이 베여 울린 말씀이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맞닥든 엄혹한 방역시련속에서도 이 나라 인민들이 지나가나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이건만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이렇게 인민들속에 계신 원수님.

《원수님, 저희들도 병을 앓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비상방역사업이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된 엄중한 시각에 무서운 악성전염병의 위협이 떠돌고있는 약국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르며 그곳 판매원들이 목이 베여 울린 말씀이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맞닥든 엄혹한 방역시련속에서도 이 나라 인민들이 지나가나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이건만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이렇게 인민들속에 계신 원수님.

《원수님, 저희들도 병을 앓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비상방역사업이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된 엄중한 시각에 무서운 악성전염병의 위협이 떠돌고있는 약국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르며 그곳 판매원들이 목이 베여 울린 말씀이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맞닥든 엄혹한 방역시련속에서도 이 나라 인민들이 지나가나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이건만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이렇게 인민들속에 계신 원수님.

《원수님, 저희들도 병을 앓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비상방역사업이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된 엄중한 시각에 무서운 악성전염병의 위협이 떠돌고있는 약국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르며 그곳 판매원들이 목이 베여 울린 말씀이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맞닥든 엄혹한 방역시련속에서도 이 나라 인민들이 지나가나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이건만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이렇게 인민들속에 계신 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인민들을 친어버이인 정으로 보살펴주시며 인민들과 어깨걸고 역사의 폭경을 헤쳐가신다.

인민을 언제나 찾아가려 노력하시고

복변의 새 전설

주제105(2016)년 10월 21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는 북부피해지역 학생소년들의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취해주시신 조치에 따른 것이었다. 순식간에 들이닥친 대재앙 속에서도 학교부터 일떠세우게 해주시고 배움의 종소리가 감동, 연산군, 경흥군, 경원군, 온성군을 비롯한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의 학생소년들이 뜻밖에 던졌던 자연재해로 보금자리를 잃은 마음속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도록 해주신 조치에 따른 것이었다. 순식간에 들이닥친 대재앙 속에서도 학교부터 일떠세우게 해주시고 배움의 종소리가 감동, 연산군, 경흥군, 경원군, 온성군을 비롯한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의 학생소년들이 뜻밖에 던졌던 자연재해로 보금자리를 잃은 마음속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도록 해주신 조치에 따른 것이었다.

사랑 어린 특별지원물자

하시면서 시안의 모든 일꾼들과 인민들이 어려운 난관을 신실있게 헤쳐나갈것이라는 믿음을 안겨주시고 개성시가 완전히 봉쇄된 그 시각부터 식량과 의약품 등을 긴급보장하도록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신데 이어 또다시 많은 량의 옥백미와 생활보장금을 보내주시었던 것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개성시 인민들이 겪는 불편이자 우리 도움이 되면 한시름 놓겠다고 하시면서 시안의 모든 일꾼들과 인민들이 어려운 난관을 신실있게 헤쳐나갈것이라는 믿음을 안겨주시고 개성시가 완전히 봉쇄된 그 시각부터 식량과 의약품 등을 긴급보장하도록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신데 이어 또다시 많은 량의 옥백미와 생활보장금을 보내주시었던 것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개성시 인민들이 겪는 불편이자 우리 도움이 되면 한시름 놓겠다고 하시면서 시안의 모든 일꾼들과 인민들이 어려운 난관을 신실있게 헤쳐나갈것이라는 믿음을 안겨주시고 개성시가 완전히 봉쇄된 그 시각부터 식량과 의약품 등을 긴급보장하도록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신데 이어 또다시 많은 량의 옥백미와 생활보장금을 보내주시었던 것이다.

인민을 지켜주는 사랑의 불사약

지난 5월 12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성된 위기를 시급히 타개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든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이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오늘의 방역대전에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

성, 인민에 대한 헌신성, 자기 임무에 대한 책임성을 실천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정치국회의에 이어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발령하시어는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과 변함없는 충심을 안고 인민보위, 인민수전에 결연히 펼쳐나 첨예한 방역전쟁에

서 항상 최후대, 돌격대, 방략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사랑하는 인민의 생명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지실 투철한 각오와 의지로 심신을 불태우시며 인민수전의 선두에 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사랑은 그 어떤 병마도 이겨내게 하는 불사약이 되어 인민들을 지켜주고있다. 본사기자

아무렇지도 않으신듯 성큼성큼 그들에게 다가가는 원수님, 그렇게 훌쩍훌쩍 뒤걸음치는 판매원들. 그 격정없이 불수 없는 화폭을 대하면서 온 나라 인민이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인민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한몸도 서슴없이 내대는 인민의 령도자, 위대한 아버지의 희생적인 헌신의 모습을.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리르는 인민들의 호린 눈앞으로 력사의 갈피에 새겨진 불멸

의 화폭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김대장, 부탁입니다. ... 들어오면 안됩니다!》 주제25(1936)년 봄, 후방밀영인 미혼전에서 50여명의 대원들과 함께 열병에 걸려 쓰러져가던 항일혁명투사 최현이 전염병통한복판으로 성큼성큼 들어서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우리르며 터친 심장의 이 부탁. 두팔을 내졌고 절절히 부르짖으며 여기가 어디라고 장군님을 모시고 오는가고 후방밀영일꾼들과 유격대지휘정원들에게 육설을 퍼부었던 투사, 포모필에 감춘 화독같이 달아오른 자기의 손을 덥석 잡아쥐고 오래동안 놓지 않으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앞에서 끝끝내 어린애처럼 눈물을 흘리고만 항일의 맹장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온다.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전사들을 떠나서는, 조국과 인민을 떠나서는 자신의 삶 그자체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 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면위천의 리움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얼마나 위험천만한 사건의 고비들을 헤쳐넘어오셨던가. 아차 한발 잘못 디디면 순간에 천길벼랑 밑으로 굴러떨어지고 말 오성산의 칼벼랑길에서 미끄

러져내리는 차바퀴에 어깨를 들이미시며 한치런칭 령을 뚫아오르시어 사랑하는 병사들을 찾아가신 눈물겨운 이야기, 배를 잡아서 삼킬듯 길길이 날뛰는 사나운 바다날씨에도 초도의 군인들을 기어이 찾아가신 헌신의 이야기... 그런데 오늘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두어에게 걸머지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려고 자신의 한몸을 서슴없이 내내신 것이다. 어찌 이번만이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년전에도 27h밖에 안되는 작은 목숨을 타시고 사나운 파도를 헤치시며 최전선인 장재도와 무도의 군인들을 찾아가시었으며 또 언제인가는 온 절대로 나가실수 없다고 간절히 말씀 올리며 한몸으로 막아나서는 지휘관들을 바라보시며 오성산을 올라와다가 초소의 병사들을 만나지 않고 가면 얼마나 섬적해졌는가, 병사들을 만나지 않으면 발길이 떨어질것같지 않다고 하시면서 어느 시각에 집전의 총포성이 울릴지 모르는 최전방 초소로 나가시어 병사들을 한몸에 안아주시었다. 사랑하는 인민이 있고 인민의 행복을 지켜신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떤 위험천만한 곳이라 해도 한몸 내대시며 기어이 찾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본사기자 리연선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쳐도 오직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만 굳게 믿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온 나라 가정에 또다시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르며 온 나라 인민은 이렇게 심장으로 웨치고있다. 본사기자 리연선